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참간 30 since 1989 주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899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음력 10월 19일)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제2공항 공론화지원특위 향방 오늘 결론

제주자치도의회, 1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의회운영위 처리 결과·의장 직권상정 여부 등 주목
카지노·시설공단 등 각종 조례안 처리 여부도 관심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제주지역 사회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향방이 오늘(15일) 최종 결정된다.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을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등 혼란스런 와중에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32일간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2020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개회일인 15일 본회의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석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는 심사기간(15일 오전 11시까지)을 정하기도 했지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14일 열린 기자간담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며 처리 의지를 밝혀 이번엔 가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의회운영위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사실상 부결)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김경학 위원장이 "의장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김태석 의장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당내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 요청이 들어오면 안 할 수 없지 않나"라며 '명분'이 생기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해당 결의안을 처리한 후 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도정질문, 21일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은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본격화되며,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의 경우 가용재원 감소 등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의장의 두차례 상임위원회 회부 거부 끝에 심사대에 오르는 '제주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가 목표하고 있는 내년 7월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끝없는 전쟁'

제주도, 7차 방제전략 수립
1500ha 면적 예방나무주사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키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 방제계획이 마련됐다.

제주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10월~2020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방제작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3차에 걸쳐 드론 및 지상·항공예찰을 통해 정확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7차 방제 기간 약 9만9000본의 재선충병 피해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방나무주사 1500ha와 피해고사목 등을 전량 제거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방제 소요예산은 13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년 1차방제 54만6000그루를 시작으로 2차 방제 51만4000그루, 3차 48만5000그루, 4차 28만9000그루, 5차 23만3000그루, 6차 14만3000그루 등 7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해 제거한 나무는 220여만 그루에 달한다.

특히 제주도는 5대 중점방제전략을 마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제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재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매일 현장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와 현장 안전매뉴얼을 작성·활용해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한라산국립공원의 청정성 유지를 위해 국립공원 연접지역 등 선단지에 대한 집중 압축방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및 고지대에서 해안방향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하고, 선단지 및 주요지역은 고사목 제거와 나무 주사를 병행해 복합방제 등 피해임지별 분석 선택적 방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제사업장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해 방제품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더불어 방제작업시 주민소득과 연계해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제사업은 도내 산림전문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사업구별 지역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수급토록 독려키로 했다. 도외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도내 인력과 장비를 수급하게끔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나무 고사목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고사목은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을 원칙으로, 다양한 목재수요 감안 및 목재자원화를 위해 도내 업체간 형평성 있게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조상윤기자

제2회 세계환경수도 제주포럼 개최

19일 한라대 컨벤션센터서 진행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전략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이사장 김부일)는 오는 19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동북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2회 세계환경수도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운찬 전 세계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의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의 목표와 전략수립에 대한 논의와 함께 토론이 이뤄진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수고했다! 내 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4일 오후 한 학부모가 신성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을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수험생 응원 물결, 한파도 녹였다

2020학년도 수능, 6·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 비슷
수능출제위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기조를 유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4일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제주지역에선 시험장 14곳에서 수험생 6400여명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을 치렀다.

>>관련기사 5면

수험생을 위한 응원 물결은 '수능한파'를 녹였다.

수능일 오전 제주에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기온을 끌어내렸지만 도내 시험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응원에 나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으로 북적였다. 학부모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수험생들의 긴장을 덜어줬고, 학생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 팻말을 들고 파이팅을 외쳤다. 교사들은 시험장에 들어서는 제자를 꼭 안아주며 시험을 잘 마치도록 격려했다.

수능 입실 마감 시간(오전 8시10분)을 앞두고선 수험생을 위한 '긴급 호송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제주중앙여고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한 수험생은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시험을 봤다.

올해 수능은 지난 6·9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불수능' 논란이 일었던 1교시 국어와 영어는 대체로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교시 수학은 중간 난도의 문제가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중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위원회는 이번 수능과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심봉섭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출제했다"며 "이번 수능도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수능 결시율은 국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015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높았다. 수험생의 필수과목인 4교시 한국사에는 7070명이 응시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670명이 시험을 보지 않아 9.48%의 결시율을 보였다.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8.04%, 2교시 수학 8.05%, 3교시 영어 8.72%, 4교시 탐구 9.67% 등으로 집계됐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